

<동정자료>

김현미 장관, “국민 생명·안전 최우선, 태풍 대비 항공안전에 만전” 강조 23일 인천공항 찾아 전국 운항·관제 비상체제 점검, 철저한 예방조치 당부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(목)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태풍 솔릭에 대비해 전국공항 항공기 운항상황과 인천공항 현장을 점검했다.
- 먼저 인천공항 종합상황실(통합운영센터, IOC)을 방문하여 태풍 솔릭 영향으로 인한 제주, 김포공항 등 전국공항의 지연·결항상황 등 운항현황을 보고 받고,
 - 태풍 영향에 따른 공항별 비상상황을 잘 살펴서 필요시 항공기 결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약객 안내를 신속하게 할 것을 강조하였다.
 - 또한 태풍이 종료된 후에는 그간 발이 묶인 체객들이 단기간에 목적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임시편 등 운항계획을 면밀히 수립토록 지시하였다.
- 김현미 장관은 이 자리에서 “최근 기후변화로 태풍, 폭설 등 자연재난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만큼, 자연재난으로 인해 인명과 항공기, 공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이 비상한 각오로 상시 재난대비태세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”하였다.
- 김 장관은 이후, 관제탑으로 이동하여 항공교통서비스를 담당하는 관제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관제사들을 격려하고 비상상황인 만큼 긴장감을 갖고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.
- 아울러, 김장관은 “태풍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 하시나 이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한 것으로 국민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기를 부탁”하였다.
-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항공기 운항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.

2018. 8. 23.

국토교통부 대변인